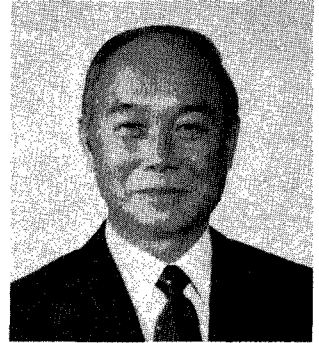


# 國家에너지自立의 新紀元을 이룩한 里程碑



姜 英 勳  
〈國務總理〉

韓彌淳사장을 비롯한 韓國核燃料株式會社 任職員 여러분, 그리고 위르겐·클라이너 주한 서독대사를 비롯한 內外貴賓 여러분.

우리는 오늘 原子力發電에 있어 가장 重要的 關鍵이 되는 核燃料를 國內에서 우리 技術로 直接 加工할 수 있는 輕水爐 核燃料 成型加工工場의 뜻깊은 竣工을 祝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核燃料의 技術自立과 國產化를 이룩하기 위해 韓國核燃料株式會社가 出帆한 지 실로 7년만에 여러 任職員들의 刻苦의 努力 끝에 오늘의 이 歷史的인 竣工式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工事を 物心兩面으로 支援하여 榮光을 함께 나누게 된 韓國電力公社, 韓國에너지研究所, 그리고 技術提供會社인 西獨의 “지멘스·카베우”社와 施工業體 關係者 여러분의 功勞에도 衷心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輕水爐에 쓰이는 核燃料를 加工할 수 있는 技術은 全世界的으로 아직 10個國에서만 開發·使用되고 있는 最尖端 科學技術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國內에서 所要되는 核燃料를 國產化하여 調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工場竣工은 原子力發電技術을 일약 國際的 水準으로 끌어올린 快舉일 뿐만 아니라 國家에너지自立의 新紀元을 이룩한 里程碑라 할 수 있습니다.

核燃料株式會社 任職員 여러분, 그리고 內外貴賓 여러분.

에너지는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生活의 向上을 保障하는 原動力이며, 에너지의 自立은 眞正한 自立經濟 建設의 礎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石油, 石炭 등의 에너지賦存資源이 全無하거나 또는 極度로 貧弱한

自然條件下에서 그동안 急速한 經濟成長과 國民生活 向上에 따른 에너지需要를 充當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1973年과 1979年 두차례의 石油波動이 우리에게 안겨준 試鍊은 참으로 深刻한 것이었으며, 그후로도 에너지需給의 莫大한 量을 해외에 依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하루하루의 國際情勢變化에 極度로 銳敏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經驗은 보다 革新的인 對替에너지의 開發을 切實히 要請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政府는 比較的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源으로서 原子力發電事業을 에너지基本施策으로 採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原子力發電所가 原子爐의 첫발을 밝힌지 10年이 經過한 지금, 原子力發電은 이미 國內 電力總需要의 절반 이상을 擔當해낼 만큼 에너지供給의 中樞的 役割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量的 成長을 바탕으로 政府는 이제 原子力技術自立과 設備國産化라는 質的 跳躍을 이룩하여 原子力産業 先進國으로서의 2000年代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技術自立이 없는 原子力發電은 莫大한 原油 導入에 比견되는 또하나의 海外依存일 뿐임을 考慮할때, 輕水爐 核燃料 成型加工 工場 준공식을 가진 오늘은 에너지自立이라는 우리의 業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을 成就한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核燃料株式會社 任職員을 비롯한 原子力發電 從事者 여러분들이 우리 國家經濟를 위해 遂行하고 있는 役割은 실로 重且大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여러분 個人은 先進國家 建設을 향한 先導者들이라 하겠습니다.

原子力發電事業이 갖는 이같은 先進國家 建設에 있어서의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일부 國民 가운데는 아직도 原子力의 安全性問題에 대하여 염려하는 시각들이 없지 않은 줄 압니다.

原子力發電所는 工場이나 原子爐 등 設備面에서는 事實上 그 어떠한 施設보다도 完璧하게 安全이 保障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사소한 失手에 의한 기기의 동작착오로 安全事故가 發生한 外國의 經驗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原子力發電 從事者 여러분은 外國의 經驗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自身이 맡고 있는 일의 輕중을 막론하고 한치의 放心도 스스로 許容할 수 없다는 자세로 業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일부 國民들의 우려가 불식되고 國家에너지政策의 百年大計로서 原子力發電事業이 順調롭게 推進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榮光된 結實을 위하여 불타는 使命感으로 作業場에서, 그리고 研究室에서 땀흘려 일했던 여러분의 勞苦에 대해 다시 한번 感謝드리며 이만 치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